



### 조영철 선생

조영철 선생은 1909년 12월 13일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하평촌에서 빈둥민의 가정 장남으로 탄생하였다. 원래 길주군 사람들은 길하다고 하여서 행운과 좋고 복하다고 하나, 조선생이 탄생한 화대면 하평촌과 그 일대-하포, 우수대 촌 일대는 토지도 아주 척박하였지만 해변강역이 없으나 고기잡이도 잘 되지 않는 사람살기 아주 힘든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철 선생의 부모들은 자기 할 짓은 한마디로 없이 일생 노력으로 하여왔다. 조선생은 어떻게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서 알 벗고 배움터를 많이 걸으면서 향촌에서 겨우 소학교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조선생이 어린시절을 보내던 하평촌 그 주변의 경치는 더 말할 것 없이 아름답았다. 촌에서는 항상 등해따다 파도소리가 들리는 강과 가까이 큰바다가 있고 농촌과 바다사이에선 삼림으로 넘쳐나고 모래밭에 들장미가 꽃피어 봄에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주는 한편 여름과 가을철에는 아주 맛 좋은 당구 열매를 주

는가하면 해변강에서 물장구치며 고기잡이는, 무래 팔으로  
 달아 다니며 아이들과 같이 공작기하던 일은 조선생의 일생  
 두고 자기친구들과 같이 회고하던 그림은 옛날이었다. 그러나  
 조영철 선생은 비교적 행복한 사람이였다. 그것은 향촌에서  
 소학교를 마감하고 그러지 않아도 최남한 최지에서 최우  
 거두 때 끼를 어어가며 살아가던 차 1910년 북해 일제  
 의 남북정책에 응중, 3종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헌후  
 레기에 족박기지를 걸머지고 소련 땅에 발을 돌린 부  
 모 양위를 따라 15세 되던 해 즉 1924년에 원동  
 연해주 백시예르 구역에 들어온후 소련 땅에서 21년간  
 살면서, 자라면서, 고향의 그림들을 많이 간직하였으나 그  
 후 조국에 다시 돌아갈수 없었고 조국건설에 참가할수  
 없었고, 동족상잔의 혼란을 겪었다 하여도 9년간이란  
 기나긴 세월을 북상직무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화는말이다.  
 부모를 따라 원동변강 연해주 땅에 들어선 조선생은 백  
 시예르 노보키예프스크란 적의안한 근노래지 도시에 도착  
 하였다. 노지없는 조선생의 부친은 여름이면 노작농사  
 를하고 겨울이면 복자 어루들어 건설하여 높은 정미소에  
 서 고용 노동을 하면서 살아갔다. 빈천한 가정은 어디  
 를 가던가 고생은 마칠한가지였으나 소련 땅에서는 노작로  
 도 품 낮고, 고용사리 분금도 북한에 그것에 비하면 비교적  
 험하였기 때문에 남의집에서 사는 집세도 물고 영철 선생  
 도 초중에서, 또 그 답에는 고졸로 4물우 없었고, 1931년에는  
 원동 위르실로브 시(당시 한인들은 소황령이라고 불렀음)에  
 가서 사전에 입학하여 1934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그

사진을 필하였다.



사진은 조영철 선생과 그의 부인 유 나라 양이  
1944년에 다뉴펜츠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을 졸업한 조선생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알렉산  
드르 리하일롭카 다반촌을 초중에 파견받아 가게 되었다.  
이 다반촌에는 연중에 유명한 비생산 극명농장이 있었던 바  
그로 인하여 유명한 농촌기계 임경소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  
많은 수리자의 기계 기술자들이 있었으며 한인 간부들도 많았다.  
조선생은 이 다반촌 초중에 파견된 것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  
였다. 그것은 당시 조선생은 25세의 원기심대한 청년자로서  
연변로 있었으며, 청년들을 지도하는 수완이 있으면서 또 농청  
년들의 신임을 많이 받았다. 조선생은 다반촌 초중 수물  
선생으로 임명되자 전 다반촌 청년들은 조선생을 다반촌  
지역 공산청년회 책임 비서로 선거하였었다. 바로 이때에

조선생의 군중을 장악하여 수반스럽게 지도하는 기교가 심로있게 발전하여 조선 국가건설에 이바지 할것만은 말할필요도없다.

조영철 선생은 1937년 한원강제어구시에 복모들과함께 까자옥 공화국 약쭈빈스크 주 까라부탁구역 부계는사이 경영농장에 실려왔다. 이곳이 산설고 물선곳, 사 랫이 존재하는 기별양식이 전혀다른 - 유목민 생활, 강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자.락고 사는것이 아니라, 목축들의 기쁨을 자.락고 사는 이곳에서 살라고 실어다 버리엿건, 죽이라고 버리엿건 어찌때 산사람은 살려고 허락어는것은 연생의 본능이아닌가? 조영철 선생은 이곳에서 와서로 초중교원일을 계속하엿다. 조선생은 벌써 1934년이후 음으로 다반출에 왔을시자기 장차 색시될사람을 결경하엿다. 다반출에 받은 많은 처녀들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네가 공산청년회 위원장의 복인될것은 벌써 누구든지 다 짐작하고 기다리엿다. 1937년, 유가이 나레오다가 20세되엿을 해에 조영철 선생과의 결혼은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해에 전체한인들이 불행스럽게 강제이주를 당하엿, 저치원 약쭈빈스크 구역에 와 떨어졌으나 실손부부는 후원지 러운지 그들에게 마지한가지엿다. 그들의 생각에는 다만 두분의 생(2명만) 보존 되엿. 어떤 사막이건, 어떤 두려산골이건 할것없이 생이 발발하게 살아 나갈 힘을 얻은것 같기로 하엿다.

이렇게 하여 조영철 양국은 만 4년간이란 긴비월을 이소원, 백등 무연 별판에서 강제어구 벌들과 같이 살다가, 노원언반의 피호 득일도 반대하는 전쟁이 시작되라 우르백공화국 하유겐스크, 공실척구역 "노위바이 부지" (새길 형동조합회)어구 - 새로 왔단 조선생 가족이 약쭈빈스크를 떠나게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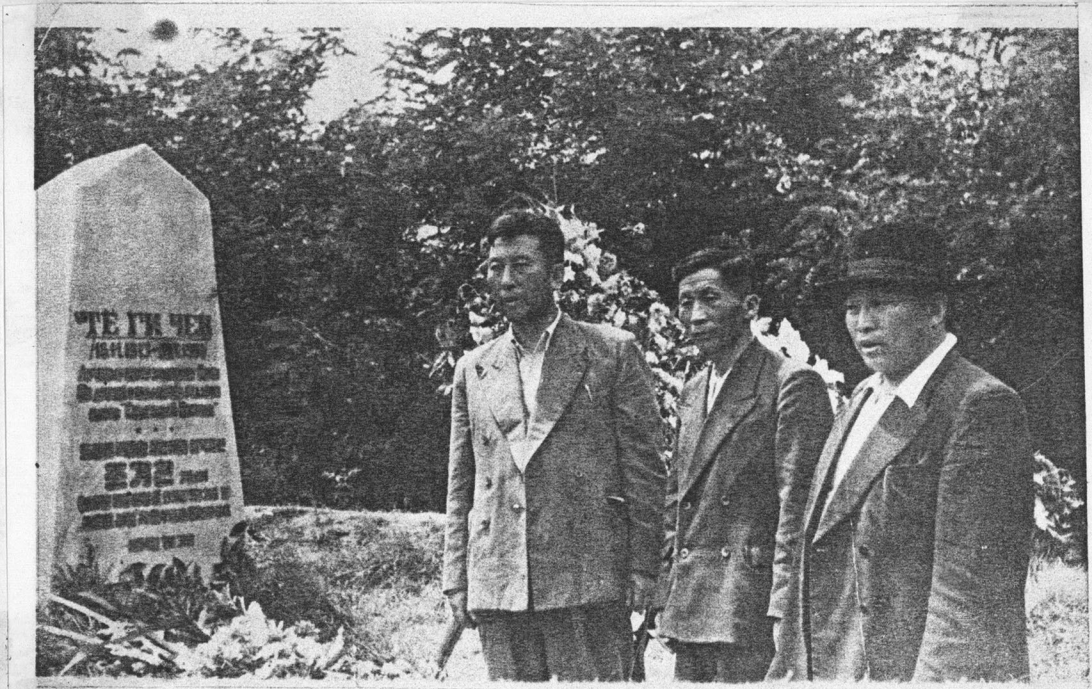
것은, 강제이주 후 4년이 지나고 보니 한인들에게는 생활조건이  
 절대로 적잖지 아닌 약 30만 명은 일생 농업에나 또  
 는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산후이기 때문에 권부나 그곳은  
 버리고 떠나다 살아야 하였던 것이다. 중아시아는 기독교 속속하게  
 되고 알타리 행(북길행) 많이 떠나서도 비동사가 원룸에  
 비동사 없어 잔디였다. 중아시아는 초지가 비교적 비옥하고, 물이  
 많고 일년 최고 낮은 겨울이 오래 계속 되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다. 본래 봄 겨울이 교원인 조선생은 노위 부지 협  
 동조합에 와서도 계속 교원사업에 종사하였다.

1945년 4월 중순에 끝으로 기다리지 않은 군사령령을 다  
 뉴겐스군 군사령령으로 부하 받았다. 이것이 한인 제 일차 군  
 대 소로 몇천만 여들은 소련군과 함께 군대 총역원으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드리게 된 한인 소련군대가였다. 조선생은 소련군  
 25군단 산하 부대, 연남부대 성원들과 함께 9월에 평양  
 에 입성한후 25군단 정치부에서 북한 언변들을 위하여 평양  
 신문사 한개를 개조하여 "조선신문"이라고 명명하고 발간하기 시  
 작한 신문사의 문장 고정원으로 1945년 9월부터 1950년 8월



사진은 조선생이 1951년 말부터 조선어민군 총방식령부  
 특별 군정 대대로 개설이 되어진 평양시 한구역에서 촬영  
 한 것이다.

중국 상관이 시작될때까지 일하시였다. 그 후 전쟁이 시작되자  
 조선병은 신음사에서 농화되어 조선연립군 농방사령부 특별군정  
 대대로 파견되어 인민군 농축방물자 공급과 보강물재 해설  
 에 대대적 방조를 주면서 1951년 2월까지 일하시고, 인  
 민군대가 중국 지원군과 협동작전을 하면서 다시 서울까지  
 출진하였을시 또 다시 권근리였다. 평양을 해방시키고 인민  
 군대는 다시 북한을 38선 개천까지 완전히 해방시키고  
 또 다시 38선을 지나 서울까지 나갔댔으나 12월달 권리리 북  
 하의 서울과 함께 남선땅은 또 다시 내놓고 후퇴하여야 하  
 였다. 이때에 북한 땅에는 폐허된 농촌경리, 다 파괴된산  
 업기업도, 다 파괴 절단된 운수계통, 인민생활은 말할바없  
 이 파산 되었었다. 인민들은 농촌에서는 씨앗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고



사진은: 원릉묘장에서 태어난 조기원 선생은 한인 언더리들 중에서도  
 천재적 시인이였다. 선생의 작품 시열, 백두산등은 높은 예술적수준  
 에서 쓴 작품이였다. 그러나 조기원 선생은 오셨을였다. 선생이 정서있게  
 서울한 시열로 문해지고, 백두산에 묘사된 김일성은 시열에 변질하였다.  
 조영철, 김영환 두 선생은 작가동맹부위원장라 함께 1951년 4월  
 31일에 유엔공중요새들의 평양시에 대한 맹폭격시 불상하게 돌아  
 가신 조기원 선생의 묘지앞에서 후회하시고 있는 환경.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사진은 1954년에 유나레는 다 복원과 같이 촬영한 조영철 선생의 가족 사진이다. 사진에는 장남-달렌지, 딸-벨라, 차녀 로자.

1953년 4월 10일에 조영철 선생은 또 다시 농환  
 장을 받고, 이번에는 원반군대에게 제대되어 사회로 나가  
 제 되었으나, 기다리려 안 된 영전이었다. 전쟁 준비가  
 복히 시작되어 전사조건하에서 원반군대에 후방보장나 없은 책  
 없지근 보장한 조영철 선생은 원시론 때대적 법칙에서  
 보장사업에 어력있은 능숙했다. 이리 넘어가게되는 보장사업  
 은 품 법칙은 좀더하여도 아주 책임적이고 중대한 일어였어, 국  
 내의 모든 산업이 타리된 조건하에서 주를 외국과 연락이  
 가장 중대하였다. 더구나 전쟁 무기간에 원반들의 건강은  
 더 말 할나 없어 최악하게 되었으며, 12년 봄바다 반복  
 되는 각종 질병병은 눈알자요, 지지프스온, 말타리호 하느부  
 많은 병들이 연달아 감를군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보건성  
 사업은 아주 중대하였다. 조선생은 공화국 보건성복상  
 으로 임명받아 전근되었다. 조선생은 전쟁후 그복잡  
 하고 골란한 형편에서 간부들이 전혀 부족되었으니, 최  
 급사업으로 조직하자면 안이없고, 예방대책을 취하자 하  
 여도 안이없거니와 물자가 전혀 없으니, 딱 딱한 건물한  
 채로 있는 조건하에서도 새직무에 들어서서 백배지든  
 줄보르곤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사업들을 조직하였으려  
 그 외에 소련, 체코, 우그리아 중국등에 돌아 다니러  
 학리등을 건국어 드려 불굴의 태세로 일하시었다. 조선  
 생이 7년간 복상으로 일하는 동안 많은 간부들도 양성하였  
 으며 의료 건물은 배 농술, 12월 혈중 조합에 진를소  
 화화식은 다 짚어놓고 군소까지 지어는 종합진를소와  
 병원등까지 건설 하여 놓았다. 조영철 선생은 본래 복한  
 길로 태생이여서 죽어도 병원에서 늙어 죽으려고 각오하고  
 살았다.



그러나 별의 무늬에 기록되는 사상검증은 무다한 간첩들  
 을 형사하여 추옥 또는 유형지로 보내는 한편 소련 출신 간첩  
 들은 불과 십여 명만 남고 처분되었다. 이러한 형편에서도  
 조선생은 애를 쓰고 일하였으나 내막적으로 북조선 정책을  
 꼭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 국적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  
 고 애국적으로 일하다 보니 북한 노동당 지도부는 조  
 선생을 신임할 수 없었다. 때문에 무화 국적을 원기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그에 복종하지 않은 관계로 일차원에서  
 내 보내니까 할 수 없어 소련에 귀국하게 되었다. 조선생은  
 1909년에 한 생애이며 1924년에 소련에 입국 하였으며  
 1945년에 다시 북한에 가서 15년간 식염하시다가  
 1960년 2월에 하뉴켄트시에 돌아와서 1980년  
 까지 거기에서 약 10년간 선주되어 일하고 있는 국영농  
 장들에 돌아다니며 지도사업을 하시다가 1970년 2월  
 6년급 생활을 하시었다. 조영철 선생은 아들 하나와  
 딸 2명을 다 장가들고 출가했는데 복원 유나레스다  
 와 끝까지 계시다가 1980년 3월 25일에 별세하였다.



사진은 조선생 가족이 평양을 이별하고 소련에 귀환하는  
 장면, 평양 역전에서 조선생 양주를 김영철 선생이  
 동별하고 있다.